

# 국민의힘 '공천전쟁' 막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간 820명 공천 면접...광주 13일·전북 14일·전남 15일 영남권 본선보다 치열... '윤심' 논란 등 공천 잡음 최소화 숙제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이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광주 일부 지역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등 노남에서도 치열한 총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820명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본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단수 추천 후보는 면접을 마친 다음 날 발표한다.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구는 후보를 몇 명까지 포함할지 등을 놓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면접 다음 날 경선 대상자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단연 눈길을 끄는 지역은 16·17일 이뤄지는 영남권이다. 당 지지도가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역 의원은 물론 인지도도 갖춘 원외 인사, 원로 정치인, 대통령실 참모, 검사 출신 등이 몰려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예상된다.

특히 중진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권역 내 '협자'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빈집'이 된 부산 부산진구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지역구 이동 요청을 받은 조해진 의원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인 없는 텃밭'을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당내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진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공천을 신청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떠나며 빈 부산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진 의원이 검사 출신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과 맞붙은 서울 강남을, 현역인 김영석 의원이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재난비서관의 도전 받는 경북 구미을도 이목이 쏠리는 면접이다. 이 전 비서관은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지역구를 되찾으려는 전직 의원과 사수하려는 현역 의원 간 대결이 펼쳐지는 지역구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임이자 의원과 이한성 전 의원이 경쟁하는 경북

상주·문경, 이한성 의원과 이종혁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부산 부산진을이 대표적이다.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끄는 당 지도부는 텃밭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 참모 또는 검사 출신이 여러 절대 우세 지역에서 공천받을 경우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입성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면접과 당 기여도 평가가 사실상 정성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천 탈락자들이 탈락 사유에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된 부적격자 29명의 반발도 공천 뇌관으로 남아있다. 앞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판'(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말조심하라"고 맞받아치며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영남은 면접 일정이 늦은 만큼 공천 결과도 가장 늦게 발표된다. 여권 지지도가 강한 영남에서 공천 탈락자가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지시에...부처 칸막이 허물기

###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 선정...유사 업무 전문성 공유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10개 국장급, 14개 과장급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교류"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자리를 바꾼다.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잦은 자리다. 인사 교류를 통해 두 업무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맞교환이 이뤄지는데, 이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산업통상

자원부) ↔특구혁신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정책조정기획관(기획재정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개발협력지원국장(국무조정실) ↔개발협력담당국장(외교부) 등 국장급 교류가 이뤄진다.

과장급에서는 ▲해양레저관광과장(해양수산부) ↔국내관광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개발전략과장(외교부) 등이 자리를 바꾼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류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내로 인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한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김해정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 국회 만들 것"

##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김해정 예비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국립5·18민주묘지, 서구 풍암교차로 등지에서 한복을 입고 시민들과 인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1일도 서구 매월동 시내버스 종점을 찾아 버스 노동자들을 만났다.

김 예비후보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노면이 평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버스 노동자들의 고충에 지하철 공사 조기 지하화와 상시 노

면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진보당 후보로서 주민들께 드리는 최고의 설날 인사는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현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저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구시설공단 환경노동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버스 노동자, 경찰·소방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등 잇따라 주민을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신정훈 '나주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공약 발표

##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선거구 예비후보는 "나주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지역 젊은 부부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밤 11시까지) 시간이나 토·일·공휴일(오후 6시까지) 등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 갑자기 자녀들이 아파도 운영 중인 소아과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다급날까지 기다려 병원으로 가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 등을 반영한 공약이다. 나주의 경우 혁신도시(빛가람동)를 중심으로 18세 미만 아이

들이 1만 423명(1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581명)보다 17.9배나 증가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69곳의 어린이병원이 운영중이며 전남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순천(2곳) 외에 광양(1곳)에서도 3월부터 문을 연다.

신정훈 후보는 "나주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반드시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尹 지지율 1.9%p 오른 39.2%

## 리얼미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9%p포인트(p) 오른 수치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하락한 57.7%였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5.3%p ↑), 인천·경기(4.5%p ↑)에서 올랐고, 서울(1.0%p ↓)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9%p ↑), 20대(5.9%p ↑) 60대(3.2%p ↑)에서 상승했고, 50대(2.4%p ↓)에서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